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금연이슈리포트



청소년 흡연, 규제보다 예방이 더 중요하다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의 의의

Infographic

2014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주요성과

Monthly Updates

이 달의 정책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의의
세계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를 꿈꾸며

Monthly Index

청소년 담배사용률

3

Vol. 22
March
2015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A monthly review and analysis of global tobacco control trends

CONTENTS

Infographic

2014년 우리나라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주요성과

Monthly Updates

- 04 이 달의 정책
- 06 이 달의 연구

Monthly Highlights

- 09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의의
- 09 세계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 11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 13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를 꿈꾸며

Monthly Index

- 14 청소년 담배사용률

발행인 장석일
기획총괄 오유미
편집·구성 이정은, 장영림

INFOGRAPHIC
No.2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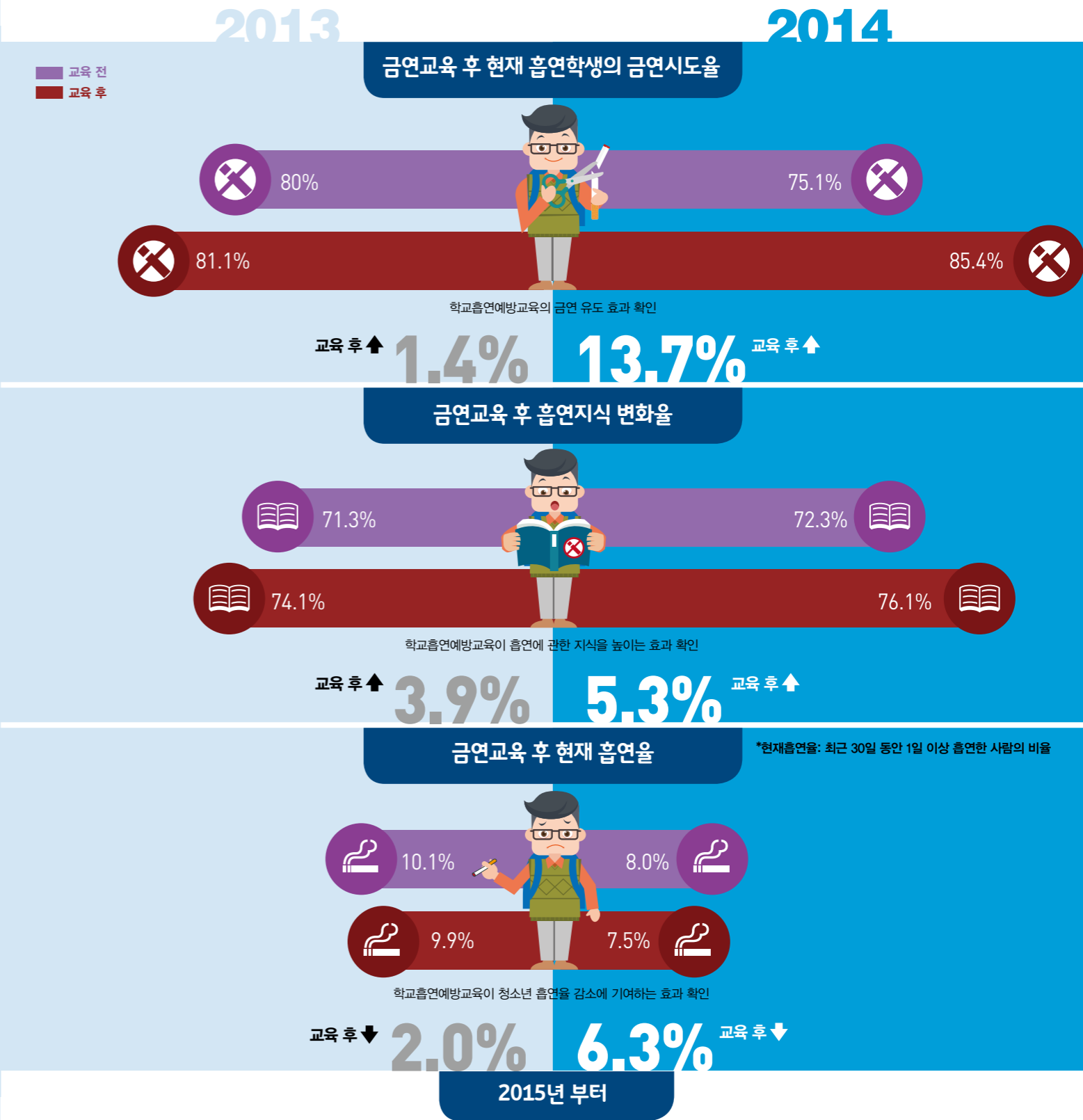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Youth Smoking
Prevention Progra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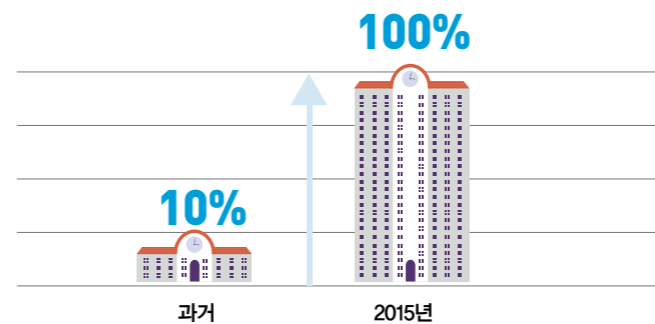


교육 및 인식제고 프로그램 시행 대상

2014년 국내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학교흡연예방교육) 주요성과



전국 초·중·고등학교에서 흡연예방교육 100% 실시



이 달의 정책



영국, 담뱃갑 무광고포장법 통과

지난 3월 16일, 영국 의회에서 담배제품의 무광고포장(standardised packaging)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영국 정부는 무광고포장법을 2016년 5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번 결정으로 영국은 이보다 앞서 유사한 법을 통과시킨 아일랜드와, 현재 세계에서 유일하게 무광고포장을 시행 중인 호주와 함께 흡연 조장을 근절하기 위한 노력에 앞장서게 되었다. 영국 의회에서는 무광고포장법 도입의 효과 및 도입 시기 등에 대한 문제와 더불어, 무광고포장법 도입 시 합법제품과 불법 제품 간의 구별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하지만 무광고 포장법이 담뱃갑의 매출도와 흡연을 조장하는 효과를 감소시키고, 건강경고의 가독성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고려해 최종적으로 법안이 통과되었다. “담배제품의 무광고포장에 관한 법률 2015(Standardised Packaging of Tobacco Products Regulations 2015)”는 말아 피우는 담배와 껴담배의 소매포장에 적용된다. 해당 법에 따르면, 모든 껴담배 및 말아 피우는 담배의 포장 내·외부에는 법에서 명시하고 있는 색상이 사용되어야 하며 브랜드 명과 같이 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내용만 규정된 서체로 표기할 수 있다. 기존에 부착되던 건강경고와 납세필증 등의 요소는 유지된다. 또한 해당 법에서는 한 갑당 최소 담배개비 수를 규정하고 있으며 담뱃갑의 모양과 종류 또한 법에 명시된 바를 따르도록 한다.



캐나다 보건부, 담배 가향물질에 대한 규제 신설 제안

캐나다 보건부가 담배규제법 개정안을 온라인에 게재하고 30일간의 대국민 의견수렴 절차에 돌입하였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시가담배에 사용되는 가향물질의 사용을 보다 강력하게 규제하는 것이며, 멘솔사용 규제는 이번 개정안에서 제외되었다. 2009년 캐나다 정부는 청소년을 공략하는 담배제품의 판촉활동, 특히 향이 첨가된 시가담배를 규제하기 위하여 “청소년공략담배마케팅근절법(Cracking Down on Tobacco Marketing Aimed at Youth Act)”을 도입한 바 있다. 그러나, 2009년 이후 해당 법의 적용이 애매한 새로운 종류의 시가담배가 등장하여 법에서 규제하고 있는 가향물질을 포함한 담배가 유통되어 왔으며, 최근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들이 이들 가향담배를 여전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예방하는 것이 담배사용을 줄이는 가장 효과적인 조치임을 고려하여, 캐나다 보건부는 특정 종류의 가향시가담배 규제를 강화하여 청소년을 담배마케팅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안을 제시하게 되었다.



걸프협력회의 회원국,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 관련 워크숍 개최

지난 3월 23~24일,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발효를 촉진하기 위한 워크숍이 쿠웨이트 시에서 열렸다. 해당 지역에서는 두 번째로 개최된 이번 워크숍에는 바레인, 쿠웨이트, 오만, 카타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에서 다양한 정부부처 담당자들이 참가하였다. 보건, 재정, 관세, 법 및 기타 분야의 정부부처 담당자들은 협약 사무국 전문가와 WHO 중동지역대표 및 걸프협력회의(Gulf Cooperation Council) 보건부장관 집행이사회 대표와 함께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 의정서의 조속한 비준과 가입을 위한 향후조치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일부 회원국들은 다부문간 협력의 부재를 의정서 비준의 가장 큰 걸림돌로 지적하였으며, 의정서 의무조항들의 우수 이행사례에 대한 정보교류가 필요하다고 하였다.



자메이카, 담뱃세 인상 단행

자메이카 재정부 장관인 피터 필립스(Peter Phillips)는 껴담배에 부과되는 특별소비세(Special Consumption Tax)가 14.28% 인상된다고 국회에 보고하였다. 이번 조치로 담배 1,000개비 당 부과되는 특별소비세는 \$10,500(약 100,275원)에서 \$12,000(약 114,600원)로 인상된다. 자메이카 정부의 담뱃세 인상은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제6조의 이행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제6차 총회에서 채택된 해당 조항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가격 및 조세조치는 담배소비 감소에 영향을 주는 가장 효과적인 정책 중 하나이다. 작년에 자메이카 정부와 협약 사무국, WHO 산하 범미주지역보건기구(Pan-America Health Organization)가 공동으로 수행한 요구평가에서도 지난 4년간의 물가상승률을 반영하고 담배제품의 사용과 수요를 감소시킬 수 있도록 담배 특별소비세를 재검토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자메이카는 지난 2010년 이후 담뱃세는 인상되지 않았던데 반해 2010년부터 2014년까지 물가는 연간 7~10% 상승하여 담배의 실질가치가 감소해 담뱃세의 효과가 약화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달의 연구



브랜드 하부상품명(brand variants)이 흡연자의 선택행동 및 위험 인지에 미치는 영향

Hoek, J., Gendall, P., Eckert, C., Kemper, J., & Louviere, J. (2015). Effects of brand variants on smokers' choice behaviours and risk perceptions. *Tobacco Control*. doi:10.1136/tobaccocontrol-2014-052094

호주 담배회사들은 무광고포장(plain packaging)의 효과를 감소시키기 위한 방편으로 브랜드의 하부상품명(variant, 말보로 '레드', 말보로 '골드' 등)을 진취적 의미가 함축된 것으로 속속 도입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브랜드 하부상품명이 흡연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밝혀내기 위해 실시되었다. 연구를 위해 18세에서 34세 사이 매일 흡연자 254명을 대상으로 품질(프리미엄), 맛(부드러움, 섬세함, 풍부함), 함축적 의미(클래식, 미드나잇, 무한함), 색감(레드, 블루, 화이트) 등 4가지 속성을 묘사한 것 중 어떤 것이 흡연자들에게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지 측정해보았다. 조사 결과, 함축적 의미(특히 클래식)와 맛(부드러움)을 묘사한 표현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담배의 속성을 묘사한 몇몇 표현들은 흡연자에게 큰 매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무광고포장의 목적을 약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책입안자들은 담배회사가 브랜드 하부상품명으로 정책을 약화시키려는 움직임에 보다 적절하게 대처해야 한다.

가정 내 간접흡연노출과 아동의 정신건강에 대한 인구기반 연구

Padron, A., Galan, I., Garcia-Esquinas, E., Fernandez, E., Ballbe, M., & Rodriguez-Artalejo, F. (2015). Exposure to secondhand smoke in the home and mental health in children: A population-based study. *Tobacco Control*. doi: 10.1136/tobaccocontrol-2014-052077

본 연구는 가정 내에서의 간접흡연 노출과 어린이의 정신 건강 간 연관성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되었다. 2011년과 2012년 사이 스페인 인구 중 4세에서 12세 사이 어린이 표본 2,357명을 대상으로, 부모가 간접흡연에 노출된 시간을 보고하는 형식으로 횡단연구를 진행하였다. 조사에 참여한 어린이 중 6.9%가 하루 한 시간 이하, 4.5%가 하루 한 시간 이상 간접흡연에 노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접흡연에 전혀 노출되지 않는 경우와 비교해보았을 때,

정신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은 한 시간 이하로 노출되는 어린이의 경우 1.49배, 한 시간 이상 노출되는 어린이의 경우 2.73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DHD의 경우, 간접흡연에 한 시간 이하로 노출되는 어린이의 경우 2.18배, 한 시간 이상 노출되는 어린이의 경우 3.14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향물질 묘사 및 오도문구를 규제한 담배제품의 인터넷 판매

Jo, C., Williams, R., & Ribisl, K. (2015). Tobacco Products Sold by Internet Vendors Following Restrictions on Flavors and Light Descriptors. *Nicotine & Tobacco Research*, 17(3), 344-349.

2009년 미국 연방 식품의약품안전청은 가족흡연예방 및 담배규제법(Family Smoking Prevention and Tobacco Control Act)을 통해 담배와 멘솔을 제외하고 껌련 담배에 첨가한 특정 맛이나 향(포도, 딸기 등)을 묘사하는 것을 금지했으며, 과학적 근거 없이 건강상의 위험을 낮춘 것처럼 보이는 라이트 등의 오도문구의 사용을 금지했다. 본 연구는 관찰연구를 통해, 인터넷 담배 판매업체(Internet cigarette vendors, ICV)에서 유통되는 담배제품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법 시행 전후를 비교하기 위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먼저 2009~2011년 사이의 가장 대중적인 판매업체 200개의 횡단면 표본을 통해 분석을 진행했다. 2009년에 비해 2011년에는 가향물질을 묘사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문구를 기재한 껌련 담배제품의 판매는 0.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판매자의 89%는 여전히 가향물질을 묘사하거나 오도문구가 표기된 제품을 판매했으며, 이중 95.8%가 인터넷 업체였다. 또한 가향 물질에 대한 묘사가 금지된 제품이 껌련(cigarette)이라는 점을 악용해 가향된 시가(cigar)를 대체제품으로 판매하기도 했다. 2009년과 비교했을 때, 2010년 인터넷 업체들이 판매한 가향 리틀시가(flavored little cigars)와 정향 시가(clove cigars)는 각각 1.7배, 5.5배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가향물질 묘사와 오도문구를 금지한 정책은 잘 이행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인터넷 업체에서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이 달의 이슈



흔히 청소년을 국가의 미래라고 한다.
 우리의 미래가 담배로 인해 병들어 간다면, 국가는 어떠한 노력을 해야 할까?
 기존의 법을 더욱 강력하게 이행하여 청소년의 담배사용을 근절하고
 담배에의 접근을 차단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흡연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제공하고
 담배에 관한 인식개선을 도모하는 것이 담배 없는 미래를 만들기 위한 근본적인 해결책이 아닐까?
 이러한 접근법에서 시작하는 것이 바로 흡연 “규제”가 아닌 흡연 “예방”을 위한 교육이다.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의의

아동기와 청소년기에는 평생에 걸친 행동양식을 익히고 배우는 시기이므로 초기에 올바른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어린이나 청소년은 담배로 인해 초래될 질병이나, 건강상의 악영향, 니코틴 중독 등에 대해 정확한 정보나 인식이 없는 상태이고, 특히 담배 광고에 노출되면서 흡연을 하는 행위가 굉장히 멋있고 독립적이라는 인식을 갖기 쉬워 선뜻 담배에 손을 대기 시작한다. 또한 니코틴 중독의 위험성에 대해 쉽게 간과하고 시작했다가 계속 흡연자가 되는 사례도 많다. 따라서 담배의 폐해와 그것이 건강에 미칠 위험성에 대해 교육하고 이를 널리 알려 애초에 흡연을 시작하지 않도록 예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일단 흡연을 시작하게 되었더라도 중증흡연자가 되지 않도록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이들의 금연을 돕는 것이 필요하다.

FCTC 제12조 및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금연정책의 기본이 되는 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에서도 역시 교육을 통한 인식 개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협약 제12조 교육, 의사소통, 훈련 및 대중의 인식제고(Education, communication, training and public awareness)는 모든 당사국이 적절한 커뮤니케이션 수단을 활용해 담배규제 문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제고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보다 세부적인 이행지침을 담고 있는 제12조의 가이드라인에서는 교육 장소로 초등학교를 비롯한 중·고등학교, 대학 등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프로그램을 실시하도록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학교를 통해 학생뿐 아니라 교직원, 지역사회 등 보다 광범위한 인구집단에 효과적으로 접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와 더불어, 담배업계가 금연정책 저해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담배회사 주도의 청소년 흡연예방 교육 혹은 캠페인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지하고, 이들과 협력하거나 연계하지 않도록 재차 강조하고 있다.

협약 제12조 및 이행을 위한 가이드라인의 주요내용

- 담배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여 대중의 인식 개선
 - 담배 생산이 건강, 사회, 경제 및 환경에 미치는 영향
 - 담배 소비 및 흡연이 미치는 영향
 - 금연이 주는 이익
 - 담배업계에 관한 다양한 정보 제공
- 해당 조항의 이행을 촉진하기 위한 세부 지침
 - 교육내용: 금연의 이익, 담배로 인한 건강상·사회적·경제적 영향 등
 - 교육장소: 가정, 학교, 운동시설, 사업장, 보건의료시설, 지역사회, 교도소 및 재활시설 등
 - 프로그램 시행 시 협력 연계 고려 기관: 비정부기구(여성, 청소년, 환경, 소비자 단체 등), 전문가 조직, 민간기관 학계, 교육 및 훈련기관, 보건의료기관 등

세계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호주

호주는 모든 주와 지방에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은 서호주, 퀸즈랜드, 빅토리아 및 수도특별구 등 7개 주정부가



공통적으로 참여·운영하고 있는 The Critics' Choice이다. 이 프로그램은 우리나라의 초등학교 고학년과 중학생에 해당하는 청소년을 대상으로 개발된 것으로, 전 세계의 대표적인 TV금연광고 12종을 보여주고 이에 대한 비평(critique)과 토론을 통해 청소년 흡연예방에 가장 효과적이라고 판단되는 광고를 선정하도록 하여 담배사용의 폐해에 대해 청소년 스스로가 자주적으로 인지하고 고민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다.



호주의 청소년 흡연예방프로그램
The Critics' Choice 운영을 위한 교사용 자료

프로그램의 운영개요 및 목적을 소개하고, 총 9단계에 해당하는 세부프로그램의 진행을 위한 가이드라인과 학생용 교재 등이 온라인에서 무료로 제공된다.

유럽연합(EU)

EU에서는 청소년의 흡연 비정상화(de-normalisation), 흡연시작 예방 및 금연 필요성 등 흡연예방 프로그램에 포함되는 기본적인 내용 뿐만 아니라 담배업계의 전략을 폭로하고 흡연의 사회·경제적 폐해를 알리는 데에 청소년의 참여를 독려하는 방향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유럽지역 내 여러 국가가 공통적으로 참여·활용한 대표적인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프로그램에는 Smokefree Class Competition이 있다. 이 프로그램은 유럽국가 내 흡연 시작의 위험성이 가장 높은 연령 집단으로 알려진 11~14세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여 6개월간 금연 학급(non-smoking class)이 되겠다는 학급의 자발적 참여를 신청받고 학생들 스스로 서로의 흡연행태와 현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6개월 후의 성과를 점검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6개월 후 해당 학급의 금연이 성공한 경우 국가 차원에서 포상을 주어 학생들의 관심과 참여를 증대하고 있으며 특히 다른 프로그램에 비하여 비용효율적으로 청소년의 흡연 시작을 연기하는 데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유럽연합의 청소년흡연예방 프로그램
Smokefree Class Competition 웹사이트

유럽지역 내 최대 22개국에 참여한 프로그램으로, 참여국가에서 공통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 지침 및 교재가 제공되며 국가간 우수사례 및 성과 평가 공유 등의 정보를 지원하고 있다.

싱가포르

싱가포르의 경우 성인의 흡연율은 매우 낮은 반면 청소년의 흡연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문제를 갖고 있는 만큼 아동 및 청소년의 흡연에 대한 인식 개선부터 흡연예방과 금연지원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싱가포르 역시 학교를 기반으로 하는 흡연예방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특이한 점은 학교 담당자가 보건부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해당 프로그램의 운영과 진행을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점이다. 또한 미취학 아동부터 대학교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까지 연령대를 고려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이고 있는데, 대표적인 사례로는 초등학교 4~6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Too Tuff To Puff Sports 프로그램과 중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Hey Butts Off 흡연예방 프로그램 등이 있다.

프로그램명	Too Tuff To Puff Sport 프로그램	Hey Butts Off 흡연예방 프로그램
대상	초등학교 4~6학년	중등학교 1~2학년
운영시간	총 8시간(1일 8시간 또는 2일 4시간 씩)	각 1시간짜리 세션 총 3세션
주요내용	· 흡연이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집중하여 담배 없는 생활의 장점 강조 · 담배사용을 거부하는 방법 교육 · 담배 없는 건강한 생활을 위한 신체활동의 중요성 교육	· 담배 없는 생활의 장점 강조 · 흡연에 대한 잘못된 인식(의지만 있으면 언제든 끊을 수 있다, 흡연이 다이어트에 도움을 준다 등) 바로잡기 · 담배사용을 거부하는 의사소통 방식 교육

우리나라의 청소년 흡연예방 프로그램

우리나라는 미래 세대의 중심인 청소년들이 담배에 접근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고, 호기심에 담배를 접한 학생들의 조기 금연을 유도하기 위하여 1999년부터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 및 금연사업을 시작하였다. 이후 다양한 국내외 사례와 프로그램 운영 경험을 바탕으로 청소년 눈높이에 맞는 교육을 위한 현장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소년의 신체적·사회적·정신적 건강을 도모하기 위하여 학교 내 흡연예방 교육환경의 정착을 위한 금연선도학교 지정 및 운영지원을 실시하고 있다. 금연선도학교는 2013년 1,262개교(전체학교의 10.9%), 2014년 1,381개교(전체학교의 10%)를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담뱃값 인상 등의 재원 확보를 통하여 2015년부터는 전체 11,837개교(전체학교의 100%)에서 학교흡연예방프로그램의 운영이 진행되고 있다. 특히 2015년부터는 흡연예방 취약계층으로 분류되는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한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다 다양한 관계기관과의 협력방안을 모색하여 보다 포괄적인 흡연예방 사업 운영을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학교흡연예방교육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기본 프로그램 운영안을 개발하여 배포하고 실제적인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제공하고 있는데, 2012년에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프로그램인 END(Experience New Day)가 개발된 데에 이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Junior END가 2014년에 개발·배포되어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흡연예방프로그램이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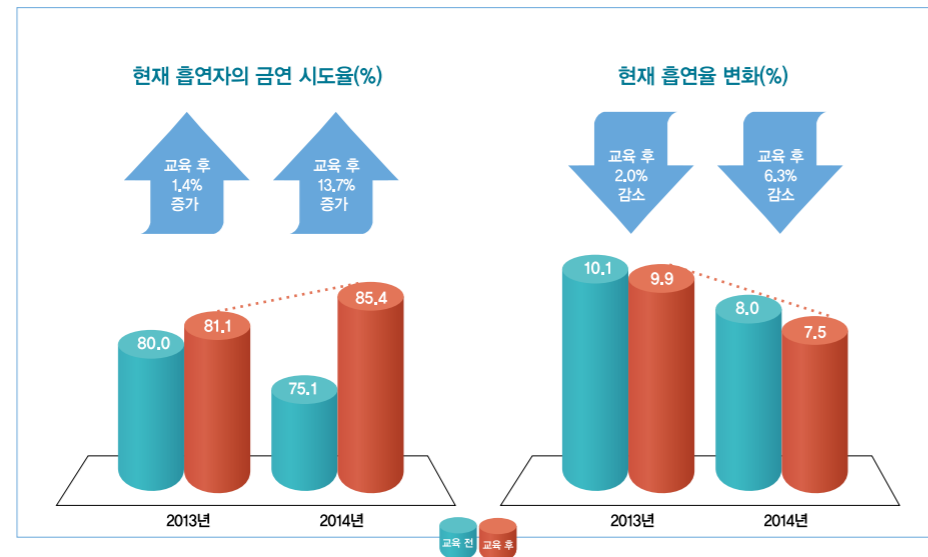


초등학생 흡연예방프로그램(Jr.END)
중·고등학생 금연프로그램(E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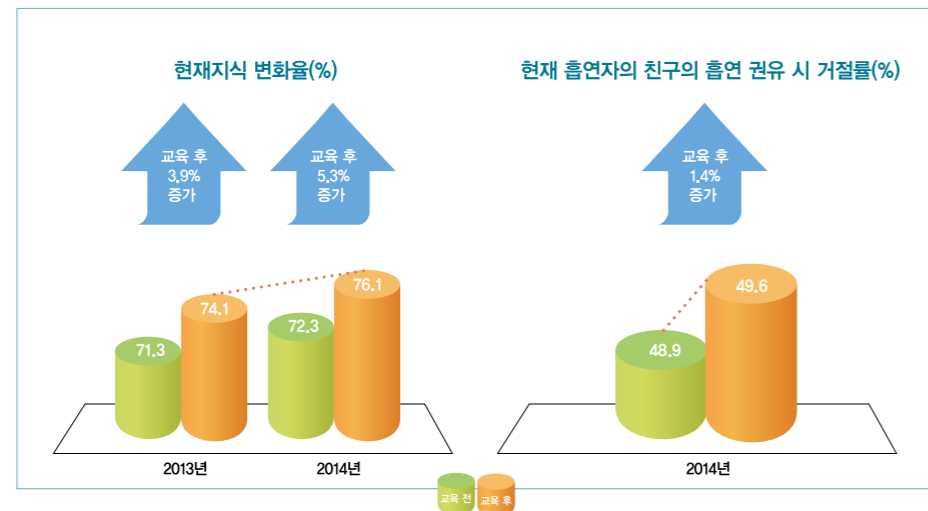
우리나라 학교흡연예방사업의 주요성과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에서 분석한 결과 2014년 학교흡연예방교육이 청소년의 흡연행태 및 흡연에 대한 인식 변화에 의미있는 영향을 준 것으로 나타났는데, 먼저 흡연예방 교육이 흡연학생의 금연시도율에 미치는 효과를 보면, 2013년 81.1%에서 2014년 85.4%로 5.3% 증가하였다. 연도별로 비교하면 2013년에는 교육 후 금연시도율이 1.4% 증가한 데에 비해 2014년에는 13.7%까지 증가하여 전년 대비 청소년 금연 장려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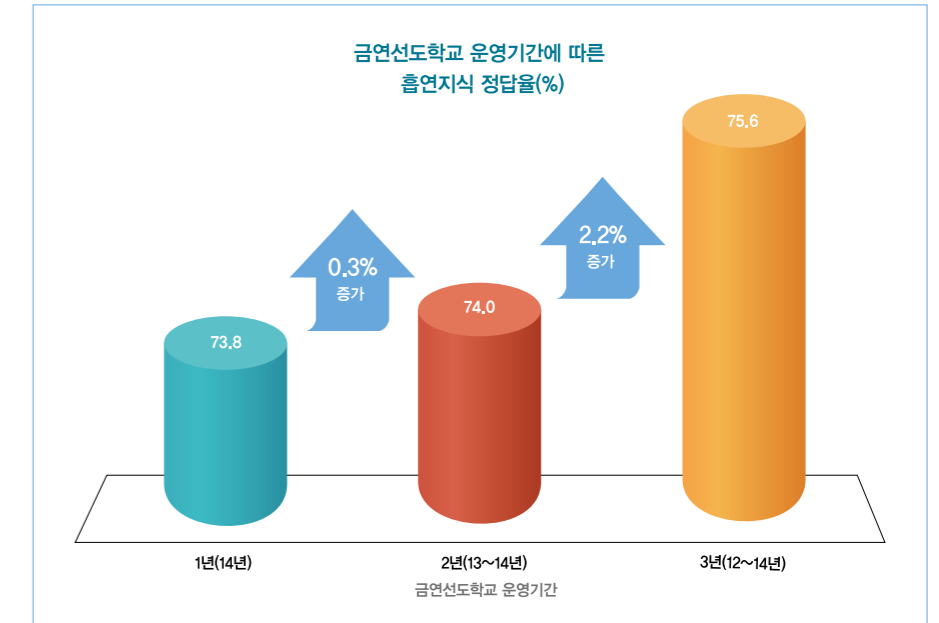
특히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청소년의 비율이 교육 후에 6.3% 가량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 학교흡연예방교육의 청소년 흡연을 감소 기여 효과가 확인되었다.



흡연과 담배제품에 대한 올바른 인식형성에 중요한 흡연 관련 지식 변화율을 살펴본 결과 76.1%로 나타나 2013년 74.1%에 비해 2.7%가 증가하여 학교흡연예방교육이 흡연에 관한 청소년의 인식 개선에 기여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친구가 흡연을 권유할 경우 거절하겠다고 응답한 비율 또한 교육 후 1.4%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바탕으로 흡연에 대한 호기심과 유혹을 현명하게 대처할 수 있는 자주적인 태도를 형성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보여주었다.



마지막으로 지속적인 학교흡연예방교육의 필요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조사한 금연선도학교 운영기간에 따른 흡연지식 정답율을 살펴보면 운영기간이 길어질수록 학생들의 흡연 관련 지식이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나 지속적이고 정기적인 청소년 흡연예방교육의 중요성을 뒷받침해 주었다.



담배로부터 자유로운 세대(Smoke-free generation)를 꿈꾸며

담배규제기본협약의 세부이행사항 가운데 유일하게 모든 당사국이 이행하고 있는 것이 청소년 대상 금연교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그만큼 아동과 청소년에게 담배와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심어주는 것이 국가 금연정책 추진에 필수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나라 또한 그간의 청소년 대상 흡연예방프로그램의 성과를 유지·강화하기 위하여 이전에는 전국 학교의 10%에 한하여 운영하던 학교흡연예방사업을 2015년부터 초·중·고등학교 100%로 확대 실시하게 되었다. 또한, 유아기부터 간접흡연으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고 흡연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조기에 습득함으로써 미래세대의 담배사용 비정상화에 기여하기 위하여 5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흡연예방프로그램을 개발할 예정이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는 2000년 이후에 태어난 인구의 담배사용 자체를 금지하여 법적으로 담배 없는 세대(Tobacco-free generation)를 만들자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이는 담배 판매와 구매를 금지하는 것에서 벗어나 아예 처음부터 접근 자체를 차단하는 강력한 의미에서의 예방책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청소년 흡연, 이제는 규제보다는 예방을 통한 근본적 해결책을 바탕으로 담배로부터 해방되는 세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Monthly Index에서는
담배규제와 관련된
주요지표에 대해 소개하고,
해당 지표의 최신내용을
전달하여 금연정책에 대한
보다 전문적이고 폭넓은
이해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매월 선정되는 담배규제
지표의 의의와 최신 데이터를
살펴보고 국내외 금연정책의
동향을 한눈에 알아봅니다.

이 달의 지표



청소년 담배 사용률 Prevalence of tobacco use by youth

지표의 개요 및 의의

만성질환의 위험은 청소년기에 시작되며, 이러한 행동양식은 성인이 되어서도 지속된다. 특히 담배는 중독성이 강한 물질이고 담배제품의 사용은 대체적으로 위험에 대한 인식이 생기기 전인 청소년 시기에 시작한다. 담배사용에 따른 보건 및 사회경제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담배사용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것은 담배사용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첫 번째 단계일 뿐만 아니라, 향후 국가의 담배 소비 경향을 추정하는 데에 사용될 수 있는 자료로서 국가 담배규제정책의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도 매우 중요한 지표이다.

용어 정의

“흡연담배”는 쥘련, 비디스, 시가, 파이프담배, 시샤(물파이프 담배), 가늘게 썬 담배 흡연 용구(직접 말 수 있는 담배), 크리켓 또는 그 밖의 흡연 가능한 담배제품을 포함한다. 일반적으로 담배사용을 조사할 때에는 가장 보편적인 쥘련담배(cigarette)의 사용을 기준으로 한다.

지표 정의 : 담배종류에 따라 세분화

현재 흡연담배 사용 청소년(Current youth smokers)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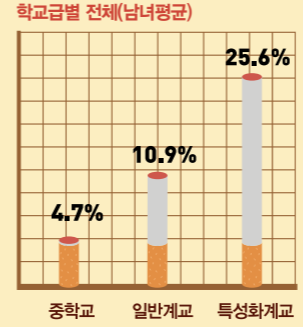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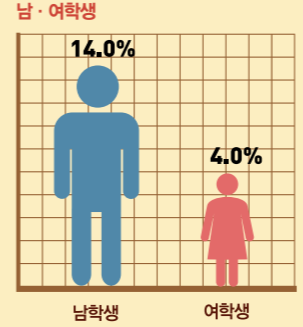
조사 날짜까지 특정 기간 동안 매일 흡연을 하거나 최소 한번 정도 간헐적으로 흡연한 청소년으로 정의한다. 총 청소년 인구 비율로 명시된 청소년의 흡연담배 사용률은 가장 최근의 국가 청소년 담배 이용 조사(또는 그 밖의 담배 사용 관련 질문조사)에 따라 청소년 100명 당 현재 흡연자 수를 뜻한다.

국내외 최신동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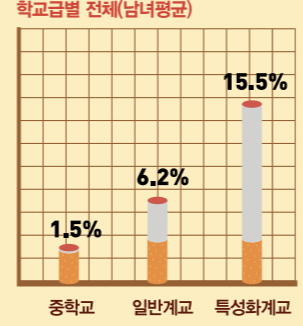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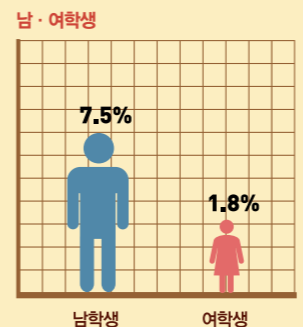
세계 청소년 담배사용 추이

2014년 FCTC 세계이행보고서(Global Progress report)에 따르면 보고서를 제출한 179개 당사국 가운데 32개국만이 정기적인 청소년 흡연을 조사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가운데 19개 국가에서는 청소년 흡연율이 2012년 이행보고서를 제출했을 때에 비하여 최소 1.0%p에서 최대 15.30%p 가량 감소하였다고 보고한 반면, 6개 국가에서는 1.2%p에서 6.5%p까지 증가한 사례도 있었다. 그 외 7개 국가의 경우 청소년 흡연율에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별간 흡연율을 보면, 남자청소년의 경우 21개 국가에서는

우리나라 청소년 현재흡연율 (2014년 기준)



우리나라 청소년 매일흡연율 (2014년 기준)



1%p 이상 흡연율이 감소한 데에 반해 9개 국가에서는 흡연율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여자청소년의 경우에는 19개 국가에서 감소하고 11개 국가에서는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 발표하는 보건통계에 따르면, 2012년 기준 OECD 회원국의 13~15세 매일흡연을 평균은 남성 10.0%, 여성 12.6%이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19개국의 평균은 남자청소년의 경우 15%이고 여자청소년은 6%로 나타났다. 한편 우리나라는 각각 2.9%, 1.2%로 OECD 평균 및 아시아 19개국 평균보다는 낮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국내 청소년흡연율

2005년부터 매년 시행하고 있는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는 우리나라 청소년의 건강행태 현황 파악, 청소년 건강증진사업 기획 및 평가에 필요한 보건지표 산출, 국가 간 비교 가능한 청소년 보건지표 산출을 위해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와 교육부에서 공동 수립한 조사이다. 가장 최근에 발표된 2014년 조사는 전국 중·고등학교 1,200개 학급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평생흡연경험, 현재흡연, 처음흡연경험연령, 매일흡연시작연령, 간접흡연, 담배구매, 전자담배사용, 담뱃값에 따른 금연의지 등 총 15개의 흡연관련 지표를 포함하고 있다.

① 현재 흡연율

현재 흡연율은 최근 30일 동안 1일 이상 흡연한 사람의 비율로 나타내는데, 남학생의 경우 14.0%로 여학생 4.0%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계고(남 34.4%, 여 13.9%), 일반계고(남 17.5%, 여 4.0%), 중학교(남 6.8%, 여 2.3%) 순으로 높았다. 연도별 추이를 볼 때 특성화계고(남학생)를 제외하고는 모두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연도	전체				남학생				여학생			
	소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소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소계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2010	12.1	8.0	11.8	30.1	16.6	10.6	17.7	37.3	7.1	5.1	5.3	21.3
2011	12.1	8.1	12.2	29	17.2	11	18.7	37.1	6.5	4.8	5.0	19.4
2012	11.4	7.2	11.9	26.9	16.3	9.8	18.1	36.5	5.9	4.3	5.1	15.7
2013	9.7	5.5	11.7	24.3	14.4	7.9	18.2	31.6	4.6	2.8	4.7	14.8
2014	9.2	4.7	10.9	25.6	14.0	6.8	17.5	34.4	4.0	2.3	4.0	13.9

② 매일 흡연율

최근 30일 동안 매일 흡연한 청소년의 비율로 나타나는 매일흡연율은 남학생이 7.5%로 여학생 1.8%보다 높았으며, 학교급별로는 특성화계고(남 21.5%, 여 7.6%), 일반계고(남 10.3%, 여 2.0%), 중학교(남 2.2%, 여 0.7%) 순으로 높았다.

구분	연도	전체	중학교	일반계고	특성화계고
전체	2010	6.0	2.3	6.5	19.6
	2011	6.1	2.7	6.7	18.8
	2012	5.4	2.1	6.4	16.2
	2013	4.8	1.7	6.2	15.1
	2014	4.8	1.5	6.2	15.5
남학생	2010	8.7	3.3	10.4	25.7
	2011	9.2	3.9	10.9	25.0
	2012	8.1	2.9	10.2	22.8
	2013	7.4	2.5	10.2	20.4
	2014	7.5	2.2	10.3	21.5
여학생	2010	2.9	1.2	2.2	12.2
	2011	2.8	1.3	2.1	11.4
	2012	2.4	1.2	2.2	8.3
	2013	1.9	0.8	2.1	8.1
	2014	1.8	0.7	2.0	7.6



질병관리본부, 제10차(2014) 청소년건강행태온라인조사 통계, 2014.
 한국건강증진재단, WHO 담배규제기본협약 10주년 기념자료집, 2014.
 Campaign for Tobacco-Free Kids, Comprehensive Tobacco Prevention and Cessation Programs Effectively Reduce Tobacco Use, 2014.
<http://www.tobaccofreekids.org/research/factsheets/pdf/0045.pdf>
 Quit Victoria, The Critics' Choice. <http://www.quit.org.au/criticschoice/>
 US CDC, Best Practices for Comprehensive Tobacco Control Programs—2014, 2014.
 US CDC, Preventing Tobacco Use Among Youth and Young Adults, A Report of the Surgeon General, 2012.
 Singapore Government Health Promotion Board, Smoking Control Programmes for Youth, <http://www.hpb.gov.sg/HOPPortal/programmes-article/2488>
 Smokefree Class Competition <http://www.smokefreeclass.info/objectives.htm>
 Tobacco in Australia – Facts & Issues, School-based interventions <http://www.tobaccoaustralia.org.au/5-23-school-based-interventions>
 WHO, 2014 Global progress report on implementation of the WHO Framework Convention on Tobacco Control, 2014.
 WHO, WHO FCTC Indicator Compendium(1st edition), 2013.
 WHO, WHO Information Series on School Health, Tobacco Use Prevention: An Important Entry Point for the Development of Health Promoting Schools, 1998.

행복한
대한민국을 여는

정부 3.0

[개방 · 공유 · 소통 · 협력]

☐ 구독신청

매월 Tobacco Control Issue Report 구독을 원하시는 분은
아래 메일주소로 소속, 성명을 기재하여 신청해주시요.

홈페이지 : www.khealth.or.kr

구독신청 이메일 주소 :

한국건강증진개발원 국가금연지원센터 tcir@khealth.or.kr

📖 4월호 예고

2015년 4월호 금연이슈리포트에서는 WHO에서 발표한 올해의
세계금연의날(World No Tobacco Day)의 주제인 담배제품
불법거래 근절에 관하여 알아봅니다. WHO 담배규제기본협약에
따른 담배제품의 불법거래의 정의와 이를 규제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 2012년 서울총회에서 채택된 담배제품 불법거래 의정서의
주요내용과 이를 이행하기 위한 각국의 노력을 소개합니다.

